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4월 미 산업 생산, 1년 만에 최대 상승…0.7%
- CNBC: 미 쇠고기 최대치 급등…파운드당 7달러
- CNBC: 친 트럼프계 연준 Miran 이사, 물러난다

[금융]]
- Bloomberg: 오일가 상승으로 글로벌 차원서 국채 매도세
- CNBC: 미 30년 국채 금리 1년새 최고치…5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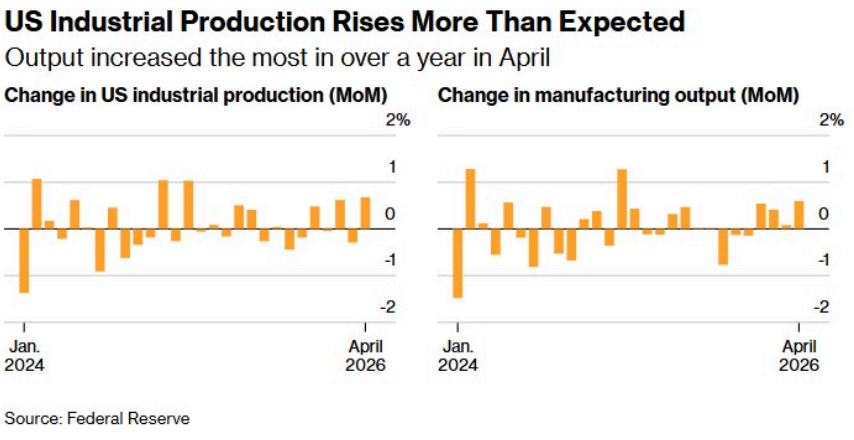
[미 중 정상 회담]
- WSJ: 이번 미 중 회담 핵심 내용 5가지
- Bloomberg: 트럼프, “시진핑에 호르무즈 관련 이란 압박 요청 안 했다”
- CNBC: 트럼프, “이란 오일 수입 중국 오일 기업 제재 여부 곧 결정”
- Bloomberg: 트럼프 “중국과 관세 유예 연장 논의 없었다”
- YahooFinance: 트럼프, “중국이 보잉 항공기 2백대 구입키로”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Industrial Production Rises by Most in Over a Year
4월 미 산업 생산, 1년 만에 최대 상승…0.7%

- 4월 미 산업 생산이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제조업 회복세를 보였다.
- 연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공장·광산·유틸리티 생산은 전월 대비 0.7% 증가했다. -3월에 보였던0.3%의 부진을 털어냈으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다. 비중이 큰 제조업 생산은 0.6% 늘었고 유틸리티도 반등했다.
- 전쟁과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에도 세제 혜택과 데이터 센터 붐에 힘입어 제조업이 안정세를 보였다. 다만, 가격 인상에 대비한 재고 비축이 생산 지표를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다.



기사

CNBC: Beef prices have hit record highs: Stat of the day
미 쇠고기 최대치 급등…파운드당 7달러

-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, 미국의 간 쇠고기(Ground Beef) 평균 가격이 파운드당 $6.90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.
- 역사상 처음으로 $7 선을 돌파했다. 이는 파운드당 $3.89였던 2020년 1월과 비교해 77%나 폭등한 수준이다. .
- 스테이크용 생고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. 소고기 스테이크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$13.02로 조사되어 역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. 2020년 1월 대비 70%의 커다란 상승률을 보이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.

기사

CNBC: Fed Governor Miran submits resignation, throws support behind Warsh as new chair
친 트럼프계 연준 Miran 이사, 물러난다

- 트럼프의 금리 인하를 지지 해온 연준 이사 Stephen Miran은 오늘 목요일 공식 사직서를 제출했다. 그는 Kevin Warsh 신임 의장이 취임할 때나 그 직전에 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.
- Miran은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옹호해 온 인물이다.
-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025년에 승인한 세 차례의 0.25%p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. 올해 진행된 금리 동결 결정에도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.

기사

[금융]

Bloomberg: Global Bond Selloff Worsens as Rising Oil Prices Spook Investors
오일가 상승으로 글로벌 차원서 국채 매도세

- 전 세계 투자자들이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수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.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중앙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.
- 특히 이번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도세는 더욱 커졌다.
- 투자자들은 높아진 차입 비용(국채 금리)이 최근 주식 시장의 상승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. 현재 시장 거래자들은 미국과 영국이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



기사

CNBC: 30-year Treasury yield tops 5.1%, highest in nearly a year
미 30년 국채 금리 1년새 최고치…5.1%

- 미 국채 수익률이 오늘 금요일 일제히 급등했다. 한 주간 이어진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더불어, 시장 참여자들이 신임 연준 의장 체제하의 새로운 통화 정책 방향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.
- 특히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0bp 이상 크게 뛰어오르며 5.117%를 기록했다. 이는 2025년 5월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, 지난 2023년 10월 기록했던 고점에도 근접한 수치다.
- 현재 인플레 압박과 중동발 유가 불안이 겹치면서,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길게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채 매도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.

기사

[미중 정상회담]

WSJ: Five Takeaways From the Trump-Xi Summit
이번 미 중 회담 핵심 내용 5가지

- 공동 성명 없는 '전략적 안정' 합의: 구체적인 거래나 무역 관련 공동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, 양측은 관계 회복에 의미를 뒀다. 서로간에 '전략적 안정'을 강조한 셈이다.
- 이란 사태 및 호르무즈 해협 공조: 양국은 이란 전쟁 종식,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, 이란의 핵 보유 금지에 뜻을 모았다. 중국은 성명에서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, 이튿날 외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애초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.
-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와 침묵: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, 미국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. 트럼프는 대만 관련 언급을 자제했으나, 미 국무장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.
- 무역 및 투자 약속: 트럼프는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와 농산물·석유 수입 확대를 포함한 무역 성과를 홍보했으나,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. 시진핑 주석은 외국 기업에 시장을 더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, 양측은 '무역·투자 위원회' 창설 등을 논의했다.

- 지속적인 대화 및 백악관 초청: 트럼프는 시진핑을 9월 24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. 두 정상은 '중난하이 정원'을 산책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.

기사

Bloomberg: Trump Says He Didn't Ask Xi to Pressure Iran on Strait of Hormuz
트럼프, "시진핑에 호르무즈 관련 이란 압박 요청 안 했다"

- 트럼프는 이란의 핵 보유 위험성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.
- 그는 시진핑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이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직접 압박하지는 않았으나, 앞으로 시진핑이 스스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.
- 또한, 트럼프는 이란이 20년 동안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으나, 현재의 제안은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.

기사

CNBC: Trump says he will soon make a decision about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buying Iranian oil
트럼프, "이란 오일 수입 중국 오일 기업 제재 여부 곧 결정"

- 트럼프는 오늘 금요일,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중국 석유 기업들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앞으로 며칠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.
- 올해 초, 워싱턴 당국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트럼프가 주도한 "강력한 압박'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란의 수입원을 차단하려 노력해 왔다.
- 지난 4월,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난 여러 정유사들을 제재했으며, 여기에는 중국 최대 정유사 중 하나인 Dalian이 포함되어 있다.

기사

Bloomberg: Trump Says He Didn't Discuss Extending Tariff Truce With Xi
트럼프 "중국과 관세 유예 연장 논의 없었다"

-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-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"중국 측이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지만,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"고 말했다.
- 대신 양측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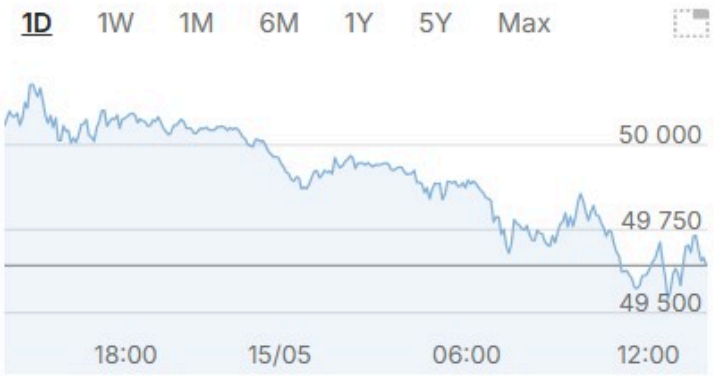
YahooFinance: Trump says China to buy 200 Boeing jets, order could go up to 750

트럼프, “중국이 보잉 항공기 2백대 구입키로”

-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, 향후 주문량이 최대 750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는 오늘 금요일 기자들에게 밝혔다.
- 트럼프는 해당 항공기들에 제너럴 일렉트릭(GE) 엔진이 탑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
- 트럼프는 이번 거래에 대해 "약 200대 규모로 시작해, 협조가 잘 이뤄질 경우 최대 750대까지 확대하기로 약속했다"고 설명했다. 다만 구체적인 기종이나 인도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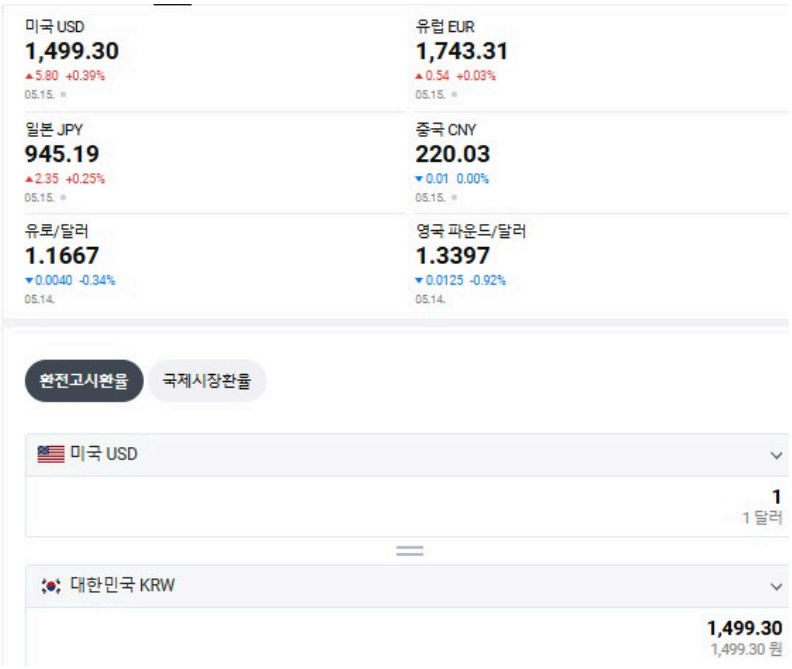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49,612.30	-451.2	-0.90%
US 500	7,422.70	-78.7	-1.05%
Dow Jones	49,614.63	-448.83	-0.90%
S&P 500	7,423.46	-77.78	-1.04%
Nasdaq	26,255.14	-380.08	-1.43%
S&P 500 VIX	18.38	+1.12	+6.49%
Dollar Index	99.152	+0.424	+0.4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1 3/32	5.115	0.083
10-Year Note	4.375	-29/32	4.583	0.094
7-Year Note	4.125	-6/32	4.413	0.097
5-Year Note	3.875	-4/32	4.250	0.093
3-Year Note	3.875	-2/32	4.143	0.077
2-Year Note	3.75	-1/32	4.088	0.058
1-Year Bill	0	0/32	3.821	0.015
6-Month Bill	0	0/32	3.732	0.004
3-Month Bill	0	0/32	3.687	-0.001
1-Month Bill	0	0/32	3.645	-0.004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